

눈길 끄는 특·특·행·정

악성 민원인 대비 모의 훈련

담양군, 폭언·폭행 등 대비 비상벨 활용 안전 환경 조성

담양군이 경찰과 함께 민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훈련은 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내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군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행사한 경우를 가정해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신속한 경찰서 상황 전파와 출동으로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로 경찰관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상황을 연출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안전장치(CCTV, 녹음, 호출장치 등), 웨어러블 캠 운영



담양군이 경찰과 함께 민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가정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담양군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원행정 분야 업무 혁신을 꾀하고 있다.

무원의 대응 능력을 키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군민과 공무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강임 담양군 열린민원담당관은 "민원 담당 공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국산 김치 사용업소 비용 지원

화순군, 163곳 식자재비 최대 25만원씩...내달 5일까지 신청

화순군이 관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사진> 신청 인증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국산 김치는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 김치 사용 업소로 인증을 받은 163곳이다.

1곳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또는 김치 완제품을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증 업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인증 업소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전남산 농수



산물 소비촉진을 도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수입산 김치보다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세라믹 제조기업 150억 투자협약

와이제이씨, 학교농공단지 내 6348㎡규모 공장 증설

함평군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라믹 연구·제조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지난 28일 세라믹 연구·제조기업인 와이제이씨와 1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987년에 설립된 와이제이씨는 국내 유일의 전자부품소성용 내화물 전문업체로 세라믹 브러시, 현무암 섬유 등 특수 복합재료를 개발해 국내 150여 곳, 해외 1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향토기업으로서 매년 지역사회 환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와이제이씨는 학교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부지 인근에 150억원을 투자해 6348㎡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신규 공장 증설로 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배지수와 와이제이씨 대표이사는 "앞으로 기업역량을 집중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기업이 성



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 빛가람종합병원 코로나 대면 진료

확진자 전용 음압 입원 병상 마련·주 3회 투석 실시 등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와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빛가람종합병원<사진>에서 코로나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의 거점 의료 시설인 빛가람종합병원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증가로 건물 3층에 확진자 전용 대면 진료, 입원 치료가 가능한 음압 시설을 구축했다.

특히 진료·입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투석 환자를 위한 투석 병상도 건물 지하에 마련해 투석 치료를 위해 장시간 타 지역 병원을 오가야했던 환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투석은 신체 내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 제거하고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신체에 주입하는 의료 행위다.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면 혈액 중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할 수 없게 돼 요독증 등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다.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면 각종 노폐물 혈액 속에 축적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투석이 필수다.

빛가람종합병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진료를



월·금요일 오전 10~12시, 오후 3~5시에 걸쳐 실시한다.

혈액 투석의 경우 주 3회(월·수·금)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서협승 나주시 보건소장은 "투석 확진자가 신속하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준 병원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종식까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전담병원 확충과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트롯요정' 김다현, 장흥군 명예군민

'조선통신사' 출연 인연... '해동사의 안중근의사' 노래 공개도

'트롯요정' 김다현이 장흥군의 명예군민이 됐다.

장흥군은 지난 28일 정남진 '흥' 콘서트에서 김다현에게 명예군민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지난해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공연에 출연하면서 장흥군과 첫 인연을 맺었다.

최근에는 장흥군 해동사와 천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해동사의 안중근의사' 노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동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장흥군이 역사문화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흥군을 알리는 데 공헌한 김다현에게 명예 군민의 지위를 선물했다.

장흥군 명예군민증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명예군민이 된 사람은 각종 위원회 위촉 등 군정



정종순(오른쪽) 장흥군수가 트롯요정 김다현 양에게 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군 운영시설 입장료 감면, 장흥군공설공원묘지 사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흥군 관계자는 "트롯요정 김다현 양의 활발한 활동을 장흥군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며 "장흥군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3년만에 재개 '주민과의 대화' 성료

나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주민과의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2주간의 '주민 소통' 일정이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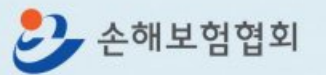
나주시는 지난 14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28일 빛가람동까지 20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3년 만에 재개된 만큼 참

여 열기도 뜨겁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집계 결과 총 건의 건수는 200여건으로 대다수 '마을 도로 개설과 확·포장', '배수로 정비',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등 마을 생활여건 개선과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분야 사업이 주를 이뤘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